

산타페, 미국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 뉴 멕시코의 산타페 와 쿠바의 트리니다드

미국의 인구 87,500명의 작은 도시인 뉴 멕시코주 산타페는 2005년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이 되었다. 예술과 문화 산업은 산타페 경제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본을 유지하며 세금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예술가들을 위해 국제적 기회를 찾고자 했던 산타페의 목표가 2022년 산타페와 쿠바 트리니다드의 장인들 간의 교류를 만들어냈다. 트리니다드는 2019년에 선정된 네트워크의 새로운 회원이다. 두 도시 모두 공예와 민속 예술 도시로 지정되었다.

산타페 예술문화부의 컨설턴트인 사브리나 프랫(Sabrina Pratt)은 트리니다드 보존국(Office of Conservation) 책임자이자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담당자인 두즈넬 자케라 아마도르(Duznel Zaquera Amador)에게 연락했다. 교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양쪽 도시에서 역사적 전통을 살리고자 하는 공통된 열정을 가진 장인을 선정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선정된 네 명의 여성들은 바느질작품에 매우 탁월하고, 판매용 작품을 만들거나 그 작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르치고 시연하는 데에 모두 능숙하다.



산타페의 줄리아 R. 고메즈(Julia R. Gomez)와 바바라 로메로 알바(Barbara Romero Alba)는 17세기부터 전해져온 스페인 식민지 콜차 스티치(colcha stitching)의 전문가들이다. 줄리아는 이 자수 스타일을 바바라에게 가르친 스승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타페에 있는 역사 박물관인 엘 란초 데 라스 골론드리나스(El Rancho de las Golondrinas)와 스페인 식민지 미술관과 같은 기관에서 시연하고 가르치면서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콜차 자수는 뉴멕시코 북부의 추로(Churro) 양들에게서 수집한 털을 수작업으로 염색하고 짠 털실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담요를 수선하기 위한 바느질로 시작되어 커튼, 의류 수선, 식탁보 등을 장식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트리니다드의 장인들은 조베이다 곤잘레스(Zobeida González)와 오브둘리아 곤잘레스(Obdulia González)이다. 그들은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독학으로 공예 기술을 배운 자매들로서, 자수와 코바늘 뜨개질, 그리고 실을 뽑는 기술의 전문가들이다. 조베이다와 오브둘리아 외 우르딤브레(Urdimbre) 단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트리니다드의 메인 광장에 있는 낭만주의(Romantico) 박물관에서 그들의 공예품을 시연하고, 가르치고, 판매한다. 이 건물은 1808년에 완공되었고, 현재 19세기 트리니다드의 부유 계층의 삶을 보여주는 유물들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바느질 작품을 전시하므로써 우르딤브레 장인들이 현대적인 작품을 만들 때에 참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르딤브레는 2017년부터 8명의 회원이 함께 작업을 하며 젊은 사람들을 가





르치고 있다.

예술가들이 서로의 도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두 명의 예술가들이 4개의 작품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각 장인들은 다른 도시의 장인이 완성한 22인치 정방형 천의 절반을 자신의 도시의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놓는 방식으로 두 도시의 전통을 결합하였다. 사브리나 프랫은 2022년 4월 트리니다드를 방문하는 기간에 절반이 완성된 작품을 교환했다.

2023년 여름 산타페에서 완성된 두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산타페 시 예술문화과장인 파울린 카나코 카미야마(Pauline Kanako Kamiyama)는 “우리는 이 교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아이디어와 전통을 보존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라고 말했다.

산타페 시 예술문화과는 2023년 6월 산타페 컨벤션 센터에 있는 커뮤니티 갤러리에 이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회의 주요 작품은 이 교류를 통해 완성된 예술 작품 두 점(나머지 두 점은 트리니다드에 있다)과 장인들의 인터뷰를 비디오로 녹화한 것이다.

Sabrina Pratt
(Focal Point of Santa Fe)